

KIST 50년, 과학입국 50년

김 남 군 (KIST 문화홍보실)



50th Anniversar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하 KIST, 원장 이병권)은 창립 50주년(창립 1966년 2월 10일)을 맞이하여 2월 4일(목) 오전 10시, 성북구 하월곡동 본원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한 주요 외빈과 임직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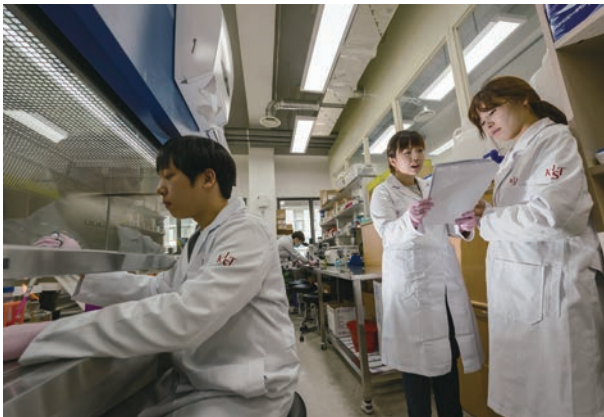
KIST 이병권 원장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KIST 2066, Beyond the MIRACLE’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지난 반세기의 영광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50년을 위한 “미지의 연구영역에 도전, 국가 R&D 구심체 역할 수행,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이어 새롭게 조성된 50주년 기념공원에서는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되었다. 타임캡슐에는 다양한 사진과 책자, 기념물품 그리고 50년 후 개봉할 후배들에게 남기는 편지 등이 담겨 KIST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메시지를 담아 봉인되었습니다.

올해로 50돌을 맞은 KIST는 1966년 2월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로서 포항제철소 건설계획 수립 주도, 전자공업 육성계획 수립 및 반도체 연구개발 등 시대





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적 R&D를 주도하며 국민 경제 및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 출연연구소의 모태로 한국 과학기술의 기반 구축과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습니다.

KIST는 초기에 건물도 없이 서울 청계천6가 한일은행 지점과 종로 YMCA 건물 5층 등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돌며 연구 인력을 모은 최형섭 초대 소장의 노력 덕분에 첫째 실장급 과학자 18명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있던 사람과 국내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사람들도 KIST에 합류했습니다.

KIST는 우리 산업의 싱크탱크로서 청사진을 제시했

을 뿐 아니라, 국산 최초의 컴퓨터 '세종1호'(1973년), 폴리에스터 필름(1977년) 개발 등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70선 중 KIST기술이 7선이나 선정되는 등 과학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6개 연구기관을 탄생시키고,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는 '만형'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의 출발점에 선 KIST는 다음 반세기를 준비하며,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66년까지의 모토를 'MIRACLE(기적)'로 정했습니다. MIRACLE은 현재 KIST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의 앞글자를 딴 것인데, 차세대 반도체(Material), 양자컴퓨팅과

새로운 50년, 미래를 향한 KIST의 도전 KIST 2066, Beyond MIRACLE

지난 반세기 **영광**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음 반세기 **새로운 기적**을 창출하자...

Material
Information
Robotics
Agriculture
Carbon
Life
Environment

차세대 소재·소자 시대 개척 (포스트 실리콘, 탄소계 복합소재)
포스트디지털시대 선도 (양자컴퓨팅, 나노산정망 모사)
미래형 인간·로봇 공존사회 구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미디어)
미래농업혁명 주도 (스마트팜, 천연물)
포스트 기후변화체제 주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네트워크)
초고령화시대 바이오·의료 선도 (지매전단, 바이오센서, 바이오닉스)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 (수자원확보, 환경복지)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DITORIAL

KIST at 50, beyond the miracle

This month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Remarkably, half a century ago, South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recovering from the Korean War and facing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Today, it is a member of the G20 major global economies with a market value that ranks 11th in the world.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s a development strategy is what made South Korea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economies. Now, as the nation promotes its new Creative Economy plan, KIST moves into its next 50 years, ensuring that science and technology remain the foundation of this new era of innovation.

KIST's establishment in 1966 is widely seen as the birth of Korea's modern science. Fifty years ago, then-president Park Chung-he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an expanding global economy. A reengineering of the government's development strategy produced the Creative Economy initiative, launched in 2013. The new plan leverages South Korea's already strong science and technology capacity to spur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ive businesses as the next economic growth engine. To help facilitate this initiative, KIST is bolstering linkages among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is providing technical and managerial assistance to startup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lthough KIST's main focus is on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it is actively expanding its responsibilities to revitalize Korea's economy through programs that progress basic research outcomes to a market-ready level.



Byung Gwon Lee is the presid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Korea. E-mail: bglee@kist.re.kr



Armadillo is an experimental car made in South Korea

나노 신경망 모사(模寫)(Information), 인공지능로봇(Robotics), 스마트팜과 천연물을 포함한 미래농업 혁명(Agriculture),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네트워크(Carbon), 치매 진단과 바이오닉스(Life), 녹색도시 구현(Environment)을 의미합니다.

KIST는 최근 개방형 연구사업(ORP, Open Research Program)의 결실로 세계 최초로 혈액검사를 통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치매 조기진단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고가의 비용과 정확도가 낮은 방법과 달리 간단한 혈액검사만을 통해 치매증상 발현 전에도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국민의 부담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KIST는 이 기술을 일진그룹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주)와 대형기술이전 조인식을 체결하여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치매조기진단 신규 시장 선점과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성과가 확산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지의 영역 도전을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통해 KIST의 신규 출연금 사업으로 양자컴퓨팅, 나노(인공)신경망 모사기술 개발을 개방형 연구사업(ORP)형태로 미지의 연구영역을 개척하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 선도형 연구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전개될 포스트 디지털 시대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이론을 선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IST 설립 초창기인 46년 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의 '한국의 과학연구소 :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이라는 물음에 지난 2월 KIST 이병권 원장이 '사설'을 통해 'KIST 창립50주년, 과거의 기적을 넘어(KIST at 50, beyond the miracle)'라는 제목의 특별기고로 답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적이라 할 수 있고, KIST는 과거의 기적을 넘어 세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로이터 통신이 논문과 특허실적 등을 분석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25개 정부·공공 연구기관' 중 KIST가 세계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맞기도 했습니다.

Top 25 Global Innovators – Government

« Top Institutions Rankings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SOUTH KOREA

Website: eng.kist.re.kr/kist_eng/main/

Budget: N/A



Compare Institutions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 headquarters in Seoul, South Korea (Photo: KIST)

TOP INSTITUTIONS | 2016 RANKINGS

- 1 Alternative Energies and Atomic Energy Comm
- 2 Fraunhofer Society
- 3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
- 4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5 National Center for Scientific Research
-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 7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
- 8 U.S. Department of Energy



기술경영경제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KIST는 지난 50년 동안 약 595조 원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종합연구소로서 융합연구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면서, 미래 100년을 위한 KIST의 행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의무를 끈임 없이 노력하고 수행하여 혁신적인 연구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연합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